

구약성경의 기록 시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쓴 저자는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없느니라”(신명기 34:5-6)라는 표현을 빌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부인하며, 심지어 모세는 신화적 존재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곳에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구약성경의 내용이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쓰인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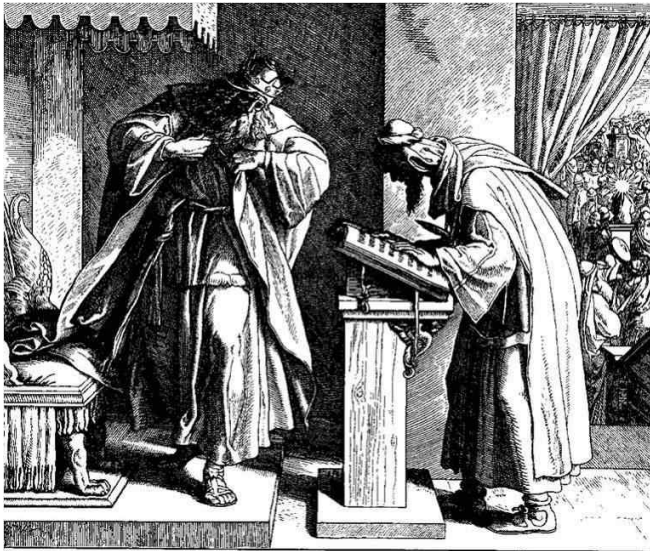
“고대 유대 민족은 다른 나라들에 의한 지속적인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기원전 922년에는 이집트, 기원전 700년에는 아시리아, 기원전 586년에는 바빌로니아, 기원전 332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198년에는 시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63년에는 로마의 침략을 받아 이들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기원후 112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는 비운을 겪는다.” 1) 그래서 이들은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독립국가의 모습을 그리고자 모세오경이라는 신화를 창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록한 형식이 기원전 7세기 초 아시리아의 종주국 조약과 비슷한 점을 학자들이 지적한다. 신명기는 계획된 연설, 축복 및 저주의 양식, 새로운 정착 마을의 건설 기념식을 통해서 사상을 표현하는 점에서 초기 그리스 문학과 여러 가지 유사점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서 신명기 원본이 열왕기하에 언급된 율법책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신명기는 힐기야가 쓴 원본에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이 첨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첨삭이 하스몬 왕국 때까지 이어지면서, 초기 그리스 문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에 걸친 발굴에 의해서 유다에서 기원전 8세기 말 이전에는 눈에 띄는 수준의 문자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끝으로 족장들의 이야기가 후대 왕국시대의 현실, 주로 기원전 7세기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언급으로 가득 찬 것도 중요한 점이다.” 3)

열왕기하 22장(역대하 34장)에 제사장 힐기야가 기원전 620년경 성전에서 신명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국에서 내려온 제사장 힐기야가 요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신명기를 작성합니다. 힐기야가 작성한 신명기가 구약성경 최초의 문서이며, 여기에서 신명기 역사서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및 열왕기 상·하가 작성됩니다. 한편 남유다국

제사장 출신들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서들을 만들어냅니다.



힐기야의 신명기 발견

열왕기를 비롯하여 모든 구약성경의 내용이 기원전 620년경에 작성된 신명기 이후에 쓰였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열왕기상 13:2에 여로보암 왕(기원전 922~901 재위)이 제단에서 분향할 때, 요시아 왕(Joshia, 기원전 640~609 재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왕권을 강화하려던 시절에 유다국으로 내려온 이스라엘국의 ‘실로(Shiloh) 제사장’⁴⁾ 계통이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실로라는 단어는 예언서 중에는 예레미야에만 수차례 나오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및 열왕기상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책들의 집필에 예레미야나 실로 출신 제사장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10에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규와 유다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KJV판은 until Shiloh come, NIV판은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라는 뜻을 알아챌 수 없는 표현으로 바꿈)’ 이르리니”라면서, 이미 이스라엘국이 멸망하고 유다국에 난민들이 내려온 후대의 역사적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시편 78:60에도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아삽의 시’편에 나옵니다. 아삽의 시가 나오는 제3권 73-83장 또는 제3권 전체가 예레미야 이후에 집필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니, 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기원전 722년 이후에 쓰였습니다. 잠언마저 기원전 700년 이후에 기록되고, 이사야서도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시점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유다 왕국까지 망하고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나, 그 이후의 기록이라는 주장이 보다 합리적 추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언서들은 실제로는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인물들이 쓴 것이 아니고, 하스몬 왕국 시절에 지배층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원전 2세기부터 1세기에 걸쳐 집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그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가 타나크(일명 구약성경)라고 알고 있는 책들이 집필되고, 편집되고,

수정되었다. 이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고자 하는 하스몬 왕국의 희망을 신화적으로 정당화한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5)

다니엘서는 로마 제국이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봉건 왕국인 마카베오 왕조의 하스몬 왕국과 관련된 시점이나 그 이후에 쓰인 것입니다. 다니엘 8: 14에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안테오코스 4세[Antiochus IV, 기원전 216~164, 169~163 유대 지역 통치]가 지배한 이후 하스몬 왕국이 들어섰는데 이 기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역사적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 글을 쓴 것이 확실합니다.

헬라가 그리스(Greece)라는 용어로 언급되는 곳은 스가랴 9:13의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Greece)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와 사도행전 20:2 두 곳이며, 그레시아(Grecia)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곳은 다니엘 8:21, 10:20 및 11:2, 요엘 3:6과 사도행전 3:6, 6:1, 9:29 및 11:20입니다.

기원전 161년 유다 마카베오가 셀레우코스 제국을 물리치고 하스몬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이 쓰인 시점이 하스몬 왕국이 세워진 이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물론이고, 스가랴, 요엘 및 말라기가 모두 하스몬 왕국 시절에 쓰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서들도 이때 집단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때나 이후에 편집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최소 세 명의 저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가랴도 두 명의 저자가 개입하였고, 예레미야도 두 명 이상의 저자나 편집자가 손을 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줄기에서 파악된 것이고 종교의 필요성에 따라 구약성경은 물론이고 신약성경에도 수많은 첨삭이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큰 줄기의 첨삭은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이후로는 용어나 문장에 대한 조정을 통한 변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살펴본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약성경—특히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갓 허구에 불과하지만, 유대교, 기독교 및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당시의 실제 인물들이 예언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무조건 경전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믿으라고 역지를 부리거나,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구약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및 세레자 요한 등을 선지자로 부르며, 이들을 예수나 무함마드와 같은 존재로 숭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세 종교에 더해 모르몬교도 구약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출처:

- 1) *The Jesus Mysteries*, Timothy Freke & Peter Gandy, Three Rivers Press, 1999: 178
- 2)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이스라엘 핑컬스타인, 닐 애셔 실버먼, 오성환 옮김, 까치, 2002: 327-328
- 3)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이스라엘 핑컬스타인, 닐 애셔 실버먼, 오성환 옮김, 까치, 2002: 377
- 4) *Who wrote the Bible?*, Richard E. Friedman, HarperCollins, 1989: 122
- 5) *The Laughing Jesus*, Timothy Freke & Peter Gandy, Three Rivers Press, 2005: 39